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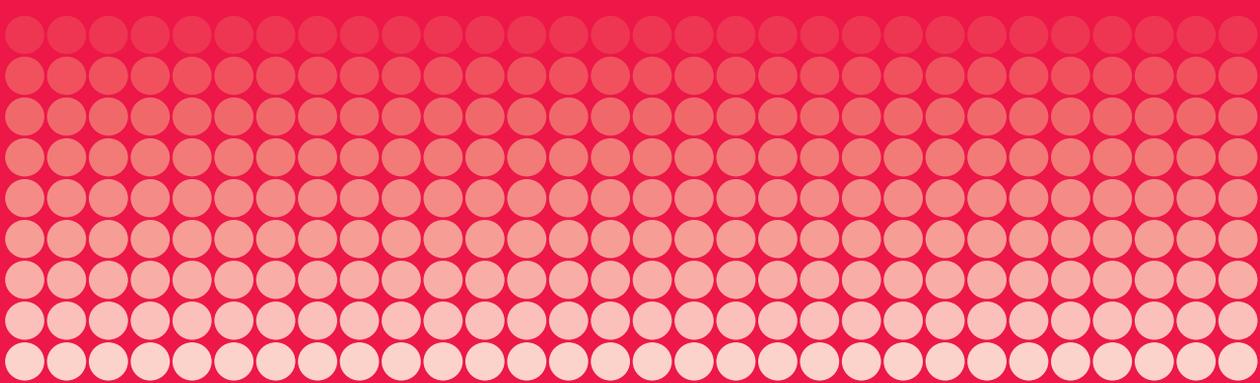
sipri

PEACE
MOMO

SIPRI YEARBOOK 2021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한국어 요약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이하 SIPRI)는 분쟁, 무장, 군비 통제, 군축 분야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비정부 민간 연구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연구과제를 채택하고 있다.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데이터와 분석, 권고사항 등을 정책결정자, 연구자, 언론 및 관심 있는 대상에게 제공하고 있다.

SIPRI 연감

2021년 SIPRI 연감은 세계 군사비 지출, 국제무기 이전, 무기생산, 핵전력, 무력분쟁 및 다자간 평화 활동 분야의 독자적인 데이터 및 군비 통제, 평화, 국제 안보 분야의 주요 부문의 최신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2020년 SIPRI 연감의 포함된 표본 데이터 및 그 분석을 요약, 제공한다.

목차

1. 도입: 2020년 국제안정과 인간안보	1
무력분쟁 및 분쟁관리	
2. 무력분쟁, 평화 프로세스 및 평화활동의 세계적 추이	2
3. 미주 지역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4
4.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5
5. 유럽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6
6.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8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10
군사비 지출 및 군비	
8. 군사비 지출	12
9. 국제무기이전과 무기생산 동향	14
10. 세계 핵전력	16
비확산, 군비통제 및 군축	
11.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확산방지	18
12.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20
13. 재래식 군비통제와 새로운 무기 기술의 규제	22
14.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4
부록	26



1. 도입

2020년 국제안정과 인간안보

댄 스미스 DAN SMITH

지난 10년간 국제 안정성과 안보가 급격히 악화한 이후에 2020년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 1년간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결론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SIPRI 연감 52판에서 제시하는 증거는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추세가 함께 나타난다. 글로벌 군사비 지출은 계속 증가했지만, 국제 무기 이전은 증가하지 않았다. 핵 무기 확산 통제는 계속 정체되는 가운데 미국은 1992년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에서 탈퇴했지만, 핵무기금지조약은 충분한 지지를 받아 2021년 1월에 발효되었다. 무력분쟁의 빈도는 다시 증가했지만, 세계 전쟁 사망자의 총수는 많이 감소했다.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은 여전히 독소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정학적 핫스팟에서 분쟁 확대와 억제 사이의 균형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기후 변화는 가속되었다. 2020년은 1850년 이래 기록상 또 한 번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비록 2020년 12월에 개최된 기후목표 정상회의(the Climate Ambition Summit)에서 일부 정책적 진전이 있었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해 발표된 목표와 공약은 기온 상승을 2°C로 제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2020년 말까지 약 8,2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약 18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아마도 둘 다 상당히 과소평가된 수치일 것이다. 팬데믹은 2020년 무력

분쟁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심리적 스트레스와 가정 폭력 증가에 기여했다. 팬데믹은 또한 큰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20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제 생산량이 감소했고, 빈곤 감소의 진행을 3년 전으로 되돌렸으며, 민주주의의 질이 광범위하게 악화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모든 효과는 향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선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제 체제의 여러 측면에 도전을 제기했던 미국 행정부를 종식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계속될 것이므로 이 선거로 글로벌 정치가 빠르게 대립 상태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이전 행정부의 정치와 정책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 정부들이 미국의 약속과 실천에 얼마나 의존할 수 있는지 숙고하게 하면서 국제 관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국제 협력

2020년에 지속된 코로나19의 기원과 책임에 대한 정치적 분쟁은 취약해지는 국제신체정치(international body politic)의 증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협력기구들은 더 많은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하면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였다. 아마도 2021년 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협력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재활성화하는 일일 것이다. ●



2. 무력분쟁, 평화 프로세스 및 평화활동의 세계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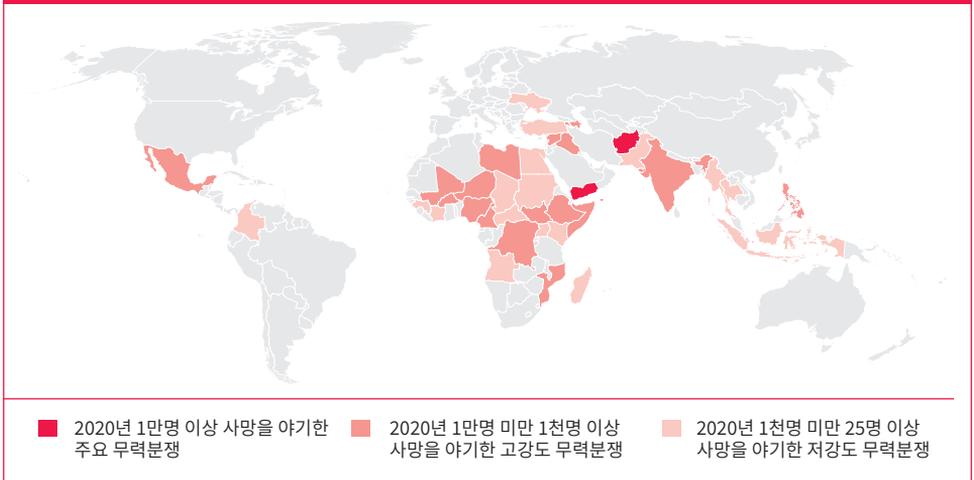
무력분쟁은 2020년에 적어도 39개 국가(2019년 대비 5개국 증가)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미주 2개국,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7개국, 유럽 3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7개국,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20개 국가가 대상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국경 내에서 정부군과 하나 이상의 비정부 무장단체 사이의 분쟁이다. 주요 일국내 무력분쟁(연간 분쟁 관련 사망자 1만명 이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두 건이었다. 그리고 연간 분쟁 관련 사망 1천명-9,900명 사이의 고강도 국내 분쟁은 16건이었다: 멕시코, 시리아, 나이지리아, 콩고민주 공화국,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말리, 이라크, 남수단, 부르키나 파소, 모잠비크, 카메룬, 리비아, 필리핀, 인도, 니제르. 국가간 분쟁은 두 건 뿐이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충돌과 나고르노-카라바흐의 통제권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의 국경 충돌이 고강도 분쟁(high-intensity conflict)으로 확대되었다. 그 외 두 건의 무력분쟁은 정부군과 새 국가수립을 열망하는 무장단체 사이에 발생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터키와 쿠르드 간 분쟁이다.

무력분쟁의 결과

적어도 2년 연속 분쟁 관련 총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 2020년 총 사망자는 약 12만명으로 2018년 대비 30% 감소했다. 2020년의 감소세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의 분쟁 관련 사망자 감소 때문이다. 두 지역은 반대로 상승세를 보였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무력분쟁으로 인해 유럽이,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분쟁(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분쟁 관련 사망자 추정치 참조)은 사망자 증가를 보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분쟁 관련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대규모 이주, 식량 불안, 인도적 위기 및 국제인도법 위반 등 무력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때로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더 심각해진 것으

2020년 무력분쟁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보증 또는 승인과 무관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분쟁 관련 사망자 추정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20건의 무력분쟁 중 18건은 2019년 대비 분쟁 관련 사망자가 증가했는데 약 41%의 순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0년에 최대 분쟁 관련 사망자 발생 지역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추월했다.

로 보인다.

평화 협정과 코로나19의 영향

2020년 많은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심각한 좌절을 겪었지만, 아프가니스탄 평화 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리비아와 시리아의 휴전은 두 분쟁이 단기적으로 어떤 형태의 해결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러시아가 나고르노-카라바흐 휴전을 중재했으나 전쟁 당사국들이 전투를 재개하였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에서의 평화 프로세스가 2020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유일한 경우였다.

2020년 코로나19가 무력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혼조세를 보였다. 무장 폭력이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폭력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몇몇의 경우에는 증가했다.

다자간 평화활동의 동향

2020년에는 62개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있었다. 전년 대비 하나 증가했다. 3개의 작전은 2020년에 끝났다. 기니 비사우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임무단(ECOMIB), 다르푸르의 아프리카연합유엔합동활동(UNAMID), 기니 비사우의 유엔통합 평화구축사무소(UNIOGBIS)가 활동을 종료했다. 2020년에는 3개의 평화활동이 시작되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연합군 사감시단(MOUACA),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유럽연합공동안보정책자문단(EUAMRCA), 리비아의 유럽연합임무단(AU Mission)의 활동이다.

다자간 평화활동에 투입된 인원수는 2020년 한 해 7.7% 감소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127,124명을 기록했다. 이것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확고한지원임무단(RSM) 등 일부 대규모 다자간 평화활동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유엔은 다자간 평화활동의 약 3분의 1과 전체 평화활동 인원의 3분의 2를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분야의 선도기구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2020년 소말리아 아프리카연합임무단(AMISOM)은 추가적인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평화활동으로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우간다와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최대 병력 기여 국가이다.

2020년 유엔 평화활동에서 적대적 행위에 의한 임무 수행자 연간 사망률은 2011-20년 기간 중 가장 낮았다. 그러나 모든 사망을 포함하는 총 사망률은 코로나19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가했다.

(SIPRI가 정의하는) ‘다자간 평화활동’이 아닌 평화활동의 수는 2020년 3개의 병력배치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 증가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 투입된 러시아의 ‘평화유지대표단(peace-keeping contingent)’, 유럽연합 해군의 지중해작전 이리니(the EU Naval Force Mediterranean Operation Irini), 사헬에 투입된 유럽다국적태스크포스 타쿠바(European multinational Task Force Takuba)이다. ●



3. 미주 지역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2020년 미주 국가들의 평화 상황은 복잡한 모습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갈등이 악화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폐쇄조치에 영향을 받아 폭력이 줄어들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장 폭력 양상이 전개되었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두 나라는 영토 내에서 여러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동시에 겪었다.

미주 지역은 콜롬비아유엔검증임무단^{the United Nations Verification Mission in Colombia}, 콜롬비아평화프로세스지원 미주기구임무단^{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Mission to Support the Peace Process in Colombia}, 아이티유엔통합사무소^{the UN Integrated Office in Haiti} 등 3개의 다자간 평화활동을 유치하고 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인민군(FARC-EP) 간의 2016년 평화협정은 50년 이상 지속된 국내 무력 분쟁을 종식시켰다. 그러나 평화협정 이행은 2020년에도 계속 난관에 부딪혔다. 민족해방군(ELN), 인민해방군(EPL), 콜롬비아가이타니스타 자위군(AGC) 등 콜롬비아 내 다른 비정부 무장단체와 준군사 단체들 간에 무력분쟁이 계속되었다. 일부 FARC-EP 이탈 세력이 무장단체에 가입했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

멕시코

멕시코에서는 정부와 할리스코 신카르텔(CJNG), 정부와 시날로아 카르텔, 그리고 두 카르텔 사이에 발생한 세 개의 국내 무력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살인 건수는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며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

한 정부의 조치는 더욱 군사화되었다. 2019년에 창설된 새로운 국가방위대는 2020년 말 약 10만명의 병력에 도달했으며 군 작전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범죄 폭력과 정치적 불안

미주 지역 전체의 살인범죄 추세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2020년 자메이카 등 다수의 국가는 세계 최고의 살인범죄율을 유지했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에서는 살인 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 운동가와 사회운동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폭력이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련 폐쇄조치의 여파로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에서 2019년 내내 발생했던 폭력적인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반복되지 않았다. 2019년 시위와 폭동은 열악한 경제 상황, 불평등 심화와 정치적 부패로 대중이 좌절하면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페루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는 대중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여러 경우에 치안 유지 경찰 활동이 가혹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4.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2020년 7개국이 적극적인 무력분쟁을 경험했으며, 이는 2019년과 같은 수치이다. 남아시아에는 아프가니스탄(주요 국제화된 내전), 인도(고강도, 국경 및 국내 무력분쟁) 및 파키스탄(저강도, 국경 및 국내 무력분쟁)의 세 분쟁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나머지 4개국은 모두 저강도, 국내 무력분쟁이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총 분쟁 관련 사망자는 2019년에 비해 거의 50% 감소했다.

2020년에 나타난 세 가지 새로운 동향이 이 지역에서의 우려 사항으로 남는다: (a) 증대되는 미-중 경쟁과 이와 동시에 점점 단호해지는 중국의 대외 정책, (b) 종족적 종교적 양극화에 기초한 정체성 정치의 확대와 관련된 폭력의 증가, 그리고 (c) 다국적 폭력적 지하드 집단의 증가 동향이다. 이들 중 가장 잘 조직화된 그룹들은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5개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있었는데, 이는 2019년과 같은 수치이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20년에 2,100명 가까운 사망자를 기록하며 비록 2019년 대비 50% 감소한 수치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력분쟁으로 남아 있었다. 2020년 2월 탈레반과 미국 간에 조건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2020년 9월 아프간 평화회담이 시작된 이후 낙관의 근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연말이 되자 평화회담이 흔들리게 되었고 폭력사태가 지속되었으며 평화 프로세스의 미래는 불확실해졌다.

카슈미르에서 무력분쟁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영토 분쟁에서 2020년 상황은 대체로 현상유지로 회귀하여 무장 폭력 상황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는 정례적인 인도와 파키스탄 군대 간의 포격 교환과 양국 통제선 사이에서의 충돌, 군사적 공격, 잠무카슈미르에서의 인도군의 대 반란 작전이 포함된다. 그러나 2020년 6월, 카슈미르 동부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에서 50년만에 처음으로 양국간 치명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총기를 동원하지 않는 폭력적인 충돌로 인도 군인 최소 20명이 사망했고 불특정 수의 중국 군인이 사망했다.

미얀마

미얀마에서는 특히 라카인 주에서 폭력이 지속되면서 진행중이던 평화 프로세스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2020년 11월 아라칸 군대와 미얀마 군대 사이에 협상을 중재하여 사실상 휴전이 포함된 외교적 성취를 이뤄냈다. 이 협정으로 대화를 위한 중요한 공간이 조성되었고 수천 명 난민의 귀환이 허용되었다. 2017년 강제이주로 난민이 된 로힝야족의 자발적 귀환 전망은 국가간 협상 체결과 방글라데시 난민 수용소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하다. ●



5. 유럽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2020년 유럽에서 두 차례의 적극적 무력분쟁이 전개되었다. 하나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통제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국경 분쟁인데 한 해 동안 고강도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국제화된 국내 저항도 무력분쟁^{low-intensity conflict}이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구 소련 지역중에서 서부 발칸 반도와 키프로스에서 대체로 비활성화 상태이지만 미해결된 갈등의 긴장이 지속되었다.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 코로나19조치,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Alexei Navalny 독극물 중독 사건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유럽 대부분 다른 지역 국가는 계속된 긴장 상태에 있었다. 또한 2020년에는 유럽 남부 국가와 그 너머의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관련 문제와 비정기적인 이주와 테러의 문제가 2020년 유럽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안보 문제로 남았다.

한 해 동안 기존 긴장 요소를 추가적으로 복

잡하게 한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a)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 (b) 2020년 8월 대선 논란에 이은 벨라루스에서의 정치적 시위, 그리고 (c) 그리스와 터키를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여러 나라들도 관련된 동부 지중해의 긴장 고조 등이다. 긍정적인 기록은, 미국이 2020년 9월 코소보-세르비아 사이의 긴장완화^{détente}를 중재한 것이다.

2020년 유럽에서 전개된 다자간 평화활동은 전년과 같은 수치였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무력분쟁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2020년에 발발한 6주간의 무력분쟁은 1988-94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이후 가장 격렬한 충돌 시기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수년 동안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이번 공세를 준비하고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로부터 군사적 정치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스라엘과 터키로부터 구입한 군사용 무인항공기를 사용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전투가 종결될 즈음 아제르바이잔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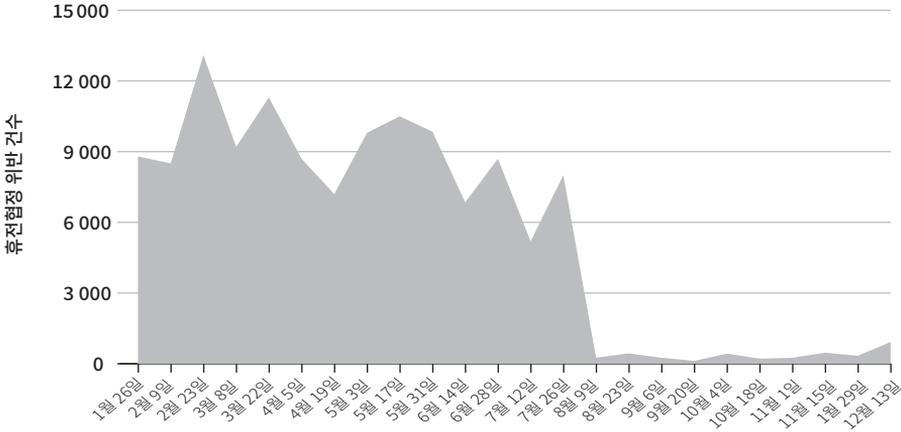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분쟁 지역, 2020년 7월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동의 또는 승인과 무관함.



우크라이나에서의 휴전 위반, 2020년 1월 13일 - 12월 13일



고르노-카라바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을 재장악하는 군사적 성공을 이루는데 핵심적이었다고 여겨진다. 이 전투로 인한 군사 및 민간 사망자는 총 6,700명으로 추산되었다.

2020년 11월 러시아가 중재한 휴전으로 전투가 중단되었고, 연말에 이르러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양측의 불안한 휴전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미래 지위와 거버넌스, 난민 송환에 대한 경쟁적 주장 사이의 타협, 협정 이행에 대한 터키의 역할,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민스크 프로세스(Minsk Process)의 미래 등 핵심 사안들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전 30년간 교착상태와는 다른 조건의 새로운 교착 상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부터 유럽의 주요 영토 분쟁의 초점이었다. 2020년에도 분쟁의 본질과 개입 정도, 그리고 기존 합의의 이행에 관해 당사자들 간의 근본적인 불일치를 해소할 수 없었다. 2020년 7월 새로운 휴전 협정으로 하반

기 휴전 위반 수준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난 6년간의 분쟁 기간 중 휴전이 20회 이상 시도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현 휴전이 지속될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2020년에는 약 109명이 분쟁 관련으로 사망했다 (2019년 403명, 2018년 893명). 2020년 말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이 분쟁은 아마 유럽의 지속적인 미해결 분쟁의 하나로 남을 것이다. ●



6.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2020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는 7개 국가에서 적극적 무력분쟁이 발생하고 있다(2017-19년과 동일): 이집트(저강도, 국내 무력분쟁), 이라크(국제화된 내전), 이스라엘(저강도, 국가외부 무력분쟁), 리비아(국제화된 내전), 시리아(국제화된 내전), 터키(저강도, 국가외부 및 국내 무력분쟁), 예멘(국제화된 주요 내전). 모든 무력분쟁은 2019년보다 사망자 수가 적었으며, 이 지역의 분쟁 관련 총 사망자는 2017년 대비 거의 70% 감소했다. 2020년 시리아에서 분쟁 관련 사망자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주요 무력분쟁으로 남은 것은 예멘 내전이다. 이 지역 분쟁의 대부분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지역 세력과 국제적 세력 뿐만 아니라 많은 비국가 행위자들도 관련되어 있다.

2020년 3월 시리아 이дли브 주 Idlib province에서 휴전이 합의되고 2020년 10월 리비아에서 전국적 휴전협정이 맺어졌는데 이는 두 분쟁이 곧 어떤 해결방안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예멘 휴전을 이끈 2018년 스톡홀름협정 Stockholm Agreement은 그 이행이 여전히 지연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지역의 인도적 도전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 내 무력분쟁에는 최소한의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 이라크, 레바논에서는 대규모로,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팔레스타인 영토 및 튀니지에서 산발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또한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심각한 국가간 군사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보였다.

2020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4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2020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사상자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새로운 '평화 계획', 서안 일부 합병 위협, 이스라엘과 4개국의 국교정상화 합의(바레인, 모로코, 수단과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주요 변화였다. 이스라엘 점령지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인도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거의 없어 보인다.

개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2019년과 같은 수치이다.

이라크, 시리아, 터키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무력분쟁

2020년 바샤르 알 아사드 Bashar al-Assad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에서의 통제권을 공고히 했으며 반정부 무장세력은 북서부의 이дли브 주와 쿠르드족이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북동부 시리아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3월 이дли브 주 휴전은 대규모 적대행위가 잦아드는 추세를 강화했다.

2020년 이라크는 정부 법제도의 약화 및 시위 증가와 함께 대체로 분쟁 후 상태의 취약한 국가로 남아있다. 이란은 이라크에서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이란 긴장은 이라크에도 전파되었다. 터키는 이라크 북부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했으며 터키 남동부의 장기간 무력분쟁 역시 지속되었다.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시리아 이дли브 휴전은 시리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동안 러시아와 터키의 영향이 공고해지는 것을 보여 준다.



예멘의 통제 지역과 분쟁 지역, 2020년 5월



UAE = 아랍에미리트.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동의 또는 승인과 무관함.

리비아의 무력분쟁과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 지중해 동부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이웃 국가들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위기를 함께 겪고 있다. 모로코와 사기아 엘 함라해방을 위한 대중 전선과 리오 데 오로(폴리사리오 전선) Rio de Oro (Polisario Front) 사이의 사라위 아랍 민주 공화국(서사하라) Sahrawi Arab Democratic Republic (Western Sahara)을 둘러싼 40년간의 영토 분쟁은 연말에 다시 일어났고, 이집트의 낮은 수준의 시나이 Sinai 반란은 2020년에도 끝나지 않거나 결정적인 결과의 징후 없이 계속되었다.

리비아 내전에서 이집트, 러시아, 터키의 역할이 심화되면서 평화 노력이 복잡해짐에 따라 터키와 이집트 또는 러시아 군대가 무력분쟁에서 반대편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군사 대결의 위험이 높아졌다. 2020년 10월 리비아에서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는 휴전 체결은 낙관론의 새로운 근거를 제시했다.

예멘

예멘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유엔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력분쟁은 연간 지속되었고 세계 최악의 인도적 위기 중 하나인 인도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20년 무력분쟁의 패턴이 주로 경제 동인으로 옮겨갔다고 결론을 내렸고, 10월 유엔은 예멘이 재앙적인 식량 안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후티인들이 내내 예멘의 정치, 경제, 군사 영역에서 계속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토의 3분의 1과 인구의 3분의 2에 통제권을 갖고 있다. 후티인들이 마리브, 호테이다, 타이즈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전쟁을 멈출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치적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무력분쟁과 평화 프로세스

2020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총 49개 국가중 최소 20개 국가에서 적극적 무력분쟁이 진행되었다: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차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DRC), 에티오피아, 기니,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우간다. 저강도 국내 무력분쟁이 10건, 고강도 무력분쟁이 10건(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말리, 남수단, 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 카메룬, 니제르) 있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다른 18건의 무력분쟁은 2020년에 2019년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 분쟁 발생 지역이 약 41%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분쟁 관련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정부와 관련기관, 폭력적인 이슬람 단체, 다른 무장단체 및 범죄 네트워크의 초국적 활동 결과로 거의 모든 무력분쟁이 범국경화되었다.

같은 역학과 민족적·종교적 긴장은 종종 그 뿌리를 국가 취약성, 부패, 기본 서비스의 비효율적인 전달, 천연자원에 대한 경쟁, 불평등 및 소외감의 조합에 두고 있다. 2020년 사하라 사막 이북 아프리카의 안보 딜레마는 선거 관련 폭력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뿐만 아니라 물안보 불안과 기후 변화의 영향 증가에 의해 형성되었다.

수단의 평화 프로세스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2020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유일한 평화 프로세스였다. 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2개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전개되었는데 전년 대비 2개 증가한 것이다.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안보 상황은 다국적 무장 종교단체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2020년 급속히 악화되었다. 마을 단위 지역사회에 기반한 민병대의 지속적인 확산 또한 기존 분쟁을 악화시켰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의 무력분쟁은 특히 세 나라의 국경이 교차하는 립타코-구르마 지역에서 악화되었다. 프랑스가 이끄는 새로운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동의 또는 승인과 무관함.



유럽태스크포스 타쿠바는 전통적인 유엔 다자간 평화활동과 함께 사헬과 차드 호수 지역에서 전개되는 기존의 국가별 및 다국적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었다. 차드 호수 지역의 불안정이 증대되는 맥락 속에서 차드와 나이지리아에서의 무력분쟁도 악화되었다.

중앙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에서는 콩고 무장단체와 외부 무장단체가 정부와 다수의 무력분쟁을 벌이면서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폭력이 크게 증가했다. 이 현상은 지역 공동체(마을 단위) 간 폭력이 부활하면서 진행되었다. 이 폭력의 대부분은 자원 경쟁과 부패하고 취약한 거버넌스로 인해 발생했다. 2020년 카메룬에서는 서로 무관한 영여권 분리주의자들의 반란과 보코하람 Boko Haram의 반란이 발생하면서 무력분쟁 상황을 악화시켰다.

동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서는 분쟁 관련 사망자(추정치)가 2019년 약 2,560명에서 2020년 약 3,6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남수단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소말리아에서 대규모 폭력사태가 지속된 데 기인한다. 2020년 무력분쟁이 벌어지는 동아프리카의 9개국 중 6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있는 아프리카의 뿔(북동부) the Horn of Africa에 위치하고 있다. 자원 분배와 접근권과 관련된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국가간 분쟁은 2020년에도 계속되었다. 나일강 동부 수자원을 둘러싼 이집트, 에티오피아, 수단 사이의 분쟁은 가장 중요한 분쟁의 하나인데 2020년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20년 모잠비크 북부의 카보 델가도 주의 이슬람 반란이 심화되었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 난민 수는 한 해에 4배 이

티그레이 분쟁

2020년 11월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레이 지역에서 연방 정부군과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 사이에 새로운 무력분쟁이 발생하여 수천 명이 사망하고 4,600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여 동수단으로 피난했다. 2020년 에티오피아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동시다발 무력분쟁과 높은 수준의 종족간 폭력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높아졌다.

상 증가하여 50만 명을 넘어섰다. 소말리아에서는 아프리카연합이 주도하는 평화활동이 계속되고 미국이 공습의 표적으로 삼았지만 알샤바브 무장 이슬람 단체가 큰 위협으로 남아 있다. 남수단에서는 지역사회 간 폭력이 2020년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8년 평화협정 이행이 지연되면서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수단에서는 평화 프로세스가 2019년에 진행된 데 이어, 2020년 주요 무장단체들과 주요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서 더욱 진전되었다. 평화 프로세스는 2020년 10월 3일 수단 정부와 다수의 무장단체 대표들이 주바 평화협정 Juba Peace Agreement에 서명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



8. 군사비 지출

2020년에는 세계 군사비 지출이 미화 1,981억 달러로 추정된다. 총 지출은 2019년보다 2.6% 높았으며 2011년보다 9.3% 증가했다. 세계 총 생산(GDP) 대비 세계 군사비 지출 비중을 의미하는 세계 군사비 부담은 2020년에 0.2%포인트 증가하여 2.4%로 증가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 이후 군사비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군사비 지출은 아프리카 5.1%, 유럽 4.0%, 미주 3.9%,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2.5% 등 세계 5개 지역 중 적어도 4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6년 연속으로 SIPRI는 중동의 총 군사비 지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없다.

코로나19의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이 군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몇 년 지나서야 더 명확해지겠지만, 2020년 상황에서 네 가지 일반적인 관측이 가능하다. 첫째, 앙골라, 브라질, 칠레, 쿠웨이트, 러시아,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팬데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비 지출을 줄이거나 전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헝가리는 유일하게 그 반대 방향을 취했는데 팬데믹에 대한 재정적 조치의 하나로 2020년 군사비 지출을 늘렸다. 군사비 지출 증대와 경제 회복을 연결하는 주장이 더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2020년에는 대다수 국가에서 군사적 부담이 증가했다. 넷째, 대부분의 국가는 코로나19 발발에 대응하는데 군사 자산, 특히 군 인력을 사용했다.

2020년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

2020년 세계 총 군사비 지출은 미국과 중국의 지출 패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증가했다. 미국

2020년 세계 군사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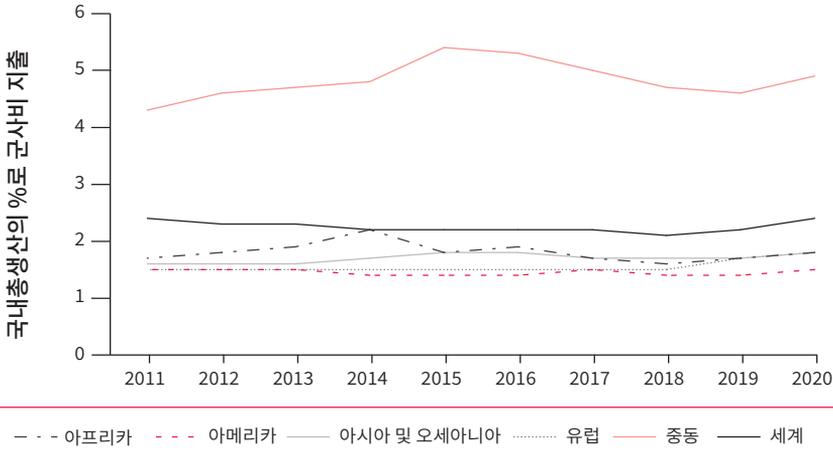
지역	지출 (US미화, 단위: 10억)	증감율 (%)
아프리카	(43.2)	5.1
북아프리카	(24.7)	6.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8.5	3.4
미주	853	3.9
중미 및 카리브해	8.6	-0.2
북미	801	4.3
남미	43.5	-2.1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528	2.5
중앙아시아	1.9	-8.4
동아시아	359	2.3
오세아니아	30.7	5.6
남아시아	90.1	1.3
동남아시아	45.5	5.2
유럽	378	4.0
중부유럽	33.6	6.0
동유럽	71.7	3.4
서유럽	273	3.9
중동
전체	1 981	2.6

() = 불확실한 수치; .. = 데이터 확인 불가
 현 지출 수치(2019) 미화 달러로 표시. 모든 증감률은 2019-20 실질 증감률.

의 군사비 지출은 3년 연속 증가하여 2020년 7,780억 달러에 도달했는데 이는 2019년 대비 4.4% 증가이지만 2011년 대비 10% 감소이다. 최근 지출 증가에 기여한 예산 항목에는 연구 개발, 미 핵무기 업그레이드 및 대규모 무기 구매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2020년에 2,5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2019년 대비 1.9%, 2011년 대비 76% 증가한 수치이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26년 연속 증가했으며, 이는 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모든 국가 중 최장기간 연속 증가의 기록이다. 중국 경제가 팬데믹 관련 규제로부터 상당히 빠르게 반등했기 때문에, 중국은 군사적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지속적인 군사비 지출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2011-20년 지역별 군사비 부담



중 하나일 것이다.

인도의 군사비 지출은 729억 달러로 2020년 2.1% 증가한 것으로, 군사비 지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총 군사비 지출은 617억 달러였다. 이는 2019년보다 2.5% 높았지만, 2020년 초기 예산보다 6.6% 낮았는데, 이는 코로나 19의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예산 대비 지출 감소는 아마도 국가 군비 프로그램 상의 약 10억 달러 감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 5위 군사비 지출국인 영국은 2020년에 군사비 지출을 2.9% 늘렸다. 영국으로서는 이것이 2011-20년 동안 영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률이지만, 2017년까지는 군사비 지출 삭감이 특징이었다.

군사비 지출의 투명성

국가의 군사비 지출을 추적하는 데에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식 정부 보고서에서 군사비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때가 있으며 정부 간행물에 보고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민주적 제도의 수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경우, 접근성, 가용성, 데이터 분류, 포괄성, 데이터 세분화 및 예산 수립과정에 대한 보고 등의 국가 투명성 기본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지역에서 각 정부의 군사비 지출 보고의 투명성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은 투명하며, 3개국(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은 부분적으로 투명하며, 브루나이, 다루살람, 라오스, 베트남만이 투명성이 제한적이거나 없다고 판단된다. ●



9. 국제무기이전과 무기생산동향

2016-20년 5년 동안 주요 무기의 국제이전 총량은 2011-15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6-20년의 무기이전 총량은 냉전이 정점에 달했던 1981-85년의 최고점보다 여전히 35% 낮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는 2020년에 무기 인도 또는 주요 무기에 대한 새로운 주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무기수출국

2016-20년 기간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등 5대 공급국가가 전체 주요 무기 수출 총량의 76%를 공급했다. 1950년 이래, 미국과 러시아(1992년 이전에는 소련)는 지금까지 최대 무기공급 국가이다. 2016-20년 미국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총 수출량의 37%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1-15년보다 15% 증가한 것이다. 2016-20년 미국이 수출한 무기의 거의 절반(47%)이 중동으로 수출되었다. 반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

은 이전 기간 대비 22% 감소했으며, 세계 총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15년 26%에서 2016-20년 20%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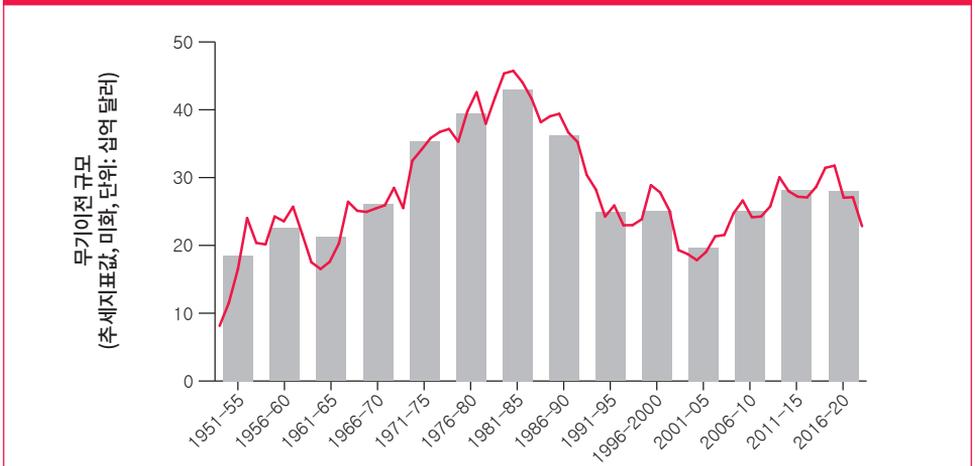
프랑스(44% 증가)와 독일(21% 증가)의 무기 수출은 2011-15년 기간 대비 증가했으며 중국은 7.8% 감소했다.

2016-20년에 주요 무기 수출국가로 SIPRI에 의해 확인된 65개 국가중 다수는 소량의 무기만 공급한다. 상위 25개 무기 공급 국가는 세계 총수출의 99%를 차지했다. 북미(캐나다 및 미국)와 유럽(러시아 포함)이 전체 무기 수출의 86%를 차지했다. 유럽과 북미 이외의 3대 공급 국가는 중국(전체의 5.2%), 이스라엘(3.0%), 한국(2.7%)이었다.

최대 무기수입국

SIPRI는 2016-20년에 주요 무기의 수입국가로 164개 국을 확인했다. 5대 무기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집트, 호주, 중국으로 전체 무기 수입의 36%를 차지했다. 2016-20년에 가장 많은 주요 무기 공급을 받은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세계 총 무기수입의 42%를 차지

주요 무기이전 추세, 1950-2020



참고: 막대 그래프는 5년 기간 동안 무기이전의 평균 총량을 표시하고 라인 그래프는 연간 합계를 나타냄.



주요 무기 수출입국, 2016-20

수출국	세계점유율(%)	수입국	세계점유율(%)
1 미국	37	1 사우디아라비아	11
2 러시아	20	2 인도	9.5
3 프랑스	8.2	3 이집트	5.8
4 독일	5.5	4 오스트레일리아	5.1
5 중국	5.2	5 중국	4.7
6 영국	3.3	6 알제리	4.3
7 스페인	3.2	7 대한민국	4.3
8 이스라엘	3.0	8 카타르	3.8
9 대한민국	2.7	9 아랍에미리트	3.0
10 이탈리아	2.2	10 파키스탄	2.7

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동은 33%를 차지했다. 이 두 지역으로의 무기 유입은 2011-15년과 2016-20년 사이에 증가했다: 중동(25% 증가), 유럽(12% 증가). 한편 아프리카(13% 감소), 미주(43% 감소),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8.3% 감소) 등 다른 3개 지역으로의 무기 유입은 감소했다.

국가 무기수출의 경제적 가치

SIPRI 무기이전 데이터는 이전된 무기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무기 수출국들이 자국이 수출한 무기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SIPRI는 2019년 세계 무기거래의 총 가치는 적어도 1,1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기생산과 군수기업

세계 25대 무기생산 및 군수기업의 총매출액은 2019년* 총 3,610억 달러로 2018년 대비 8.5% 증가한 수치이다. 2019년 SIPRI 순위에는 일부 중국 군수기업의 데이터가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2019년 상위 25개 군수기업은 북미(12개사)와 유럽(8개사)에 집중되어 있지만, 중국의 4개 기업, 아랍에미리트의 1개 기업도 포함된다. 상위 5개 기업은 모두 미국에 본사를 두

지역별 주요 무기 수입 점유율

수입국 지역	세계점유율(%)	수입량 증감률(%)
	2016-20	2011-15~2016-20
아프리카	7.3	-13
아메리카	5.4	-43
아시아및오세아니아	42	-8.3
유럽	12	12
중동	33	25

고 있다.

SIPRI는 2019년 15대 군수기업을 중심으로 무기 산업의 국제적 분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데이터 집합은, 모회사가 본사를 둔 국가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지점, 자회사 및 합작 투자로 정의된 400개의 외국 법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15대 군수 기업이 적어도 49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 최근 가용 데이터.



10. 세계 핵전력

2021년 초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 9개국이 약 13,08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825개가 작전 부대에 배치되었다. 그 가운데 2,000여개는 고도의 작전경계태세로 유지되고 있다.

핵무기 보유상황

전반적으로 핵탄두 재고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로 미국과 러시아가 퇴역 탄두 retired warheads를 해체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작전 탄두 operational warheads의 감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데, 감축 탄두 수는 다시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 미사일 및 항공전달체계, 핵무기 생산 시설 교체 및 현대화를 위한 고비용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미국은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SSBN)에 새로운 저위력 핵탄두 low-yield warheads 배치를 완료하고 새로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BM)의 발사 계획을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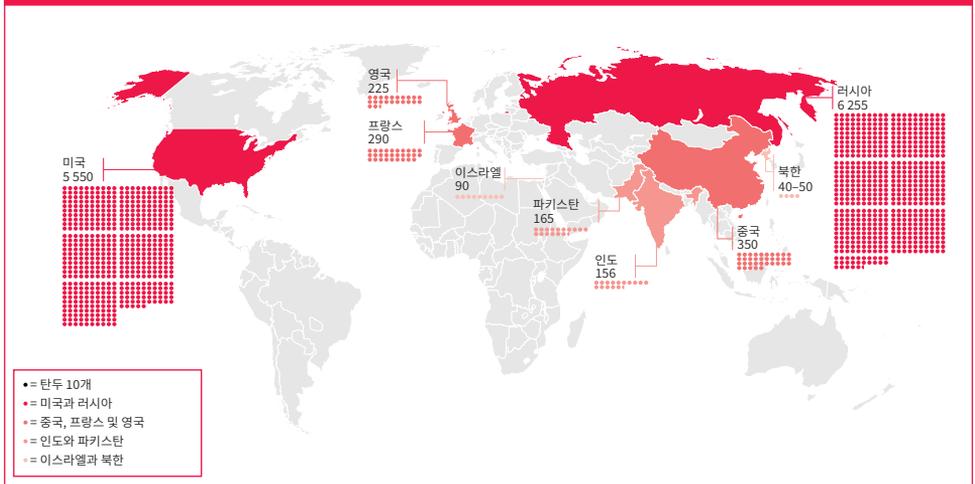
전시켰다. 러시아는 네 번째 보리 Borei급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을 함대에 추가했으며, 야르스 Yars와 아방가르드 Avangard 대륙간 탄도미사일, 칼리브르 Kalibr 지상 공격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의 수를 늘렸다.

다른 핵무장 국가들의 경우, 핵무기 보유 규모는 훨씬 작지만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 또는 배치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중요한 핵무기의 현대화와 확장을 추진하는 중이며,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 비축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보인다. 북한은 2020년 새로운 핵무기 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전달 체계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군용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낮은 수준의 투명성

핵무기 보유 현황과 핵전력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여부와 정도는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이전에 핵비축 상황과 핵전력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2019년

전세계 핵무기 비축, 2021년 1월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동의 또는 승인과 무관함.



2020년 세계 핵분열성 물질 보유현황

핵무기 원료는 핵분열성 물질로서 고농축우라늄(HEU) 또는 추출 플루토늄을 사용한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 용도로 생산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주로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파키스탄은 주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지만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했는데 핵무기 용도 고농축우라늄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원자력 산업을 보유한 모든 국가가 핵분열성 물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핵분열성물질전문가패널(IPEM)은 전 세계 핵분열성 물질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세계 보유 현황, 2020

고농축우라늄	-1 330톤
추출 플루토늄	
군용 보유량	-220톤
민간 보유량	-320톤

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행정부는 미국의 핵비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 또한 일부 정보만 공개해오고 있다. 러시아는 신전략무기 감축조약(New START)에 명시된 핵전력의 세부 사항을 미국과는 공유하나 대외적인 공개는 거부했다. 중국은 이전보다 더 자주 핵전력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핵전력 개수나 앞으로의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는 일부 미사일 시험에 관해 발표하지만, 핵무기 비축 규모나 상태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실행했다고 인정했으나 핵

세계 핵전력, 2021년 1월

국가	배치된		총비축량
	탄두	기타 탄두	
미국	1 800	3 750	5 550
러시아	1 625	4 630	6 255
영국	120	105	225
프랑스	280	10	290
중국	-	350	350
인도	-	156	156
파키스탄	-	165	165
이스라엘	-	90	90
북한	-	[40-50]	[40-50]
전체	3 825	9 255	13 080

- 는 0 또는 무시할 수 있는 값, []는 불확실한 수치로 총계에서 제외.

* 합계는 5단위 반올림값.

참고: '기타 탄두'란 저장소에 보관된 작전 탄두와 해제 예정 탄두를 포함한다.

러시아와 미국의 수치는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집계 규칙으로 인해 협정에 명시된 수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모든 추정 수치는 근사치이다. SIPRI는 새로운 정보와 이전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매년 세계 핵전력 데이터를 수정한다.

전력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핵비축에 대한 지속적인 비공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11.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 확산 방지

핵무기금지조약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발효

모든 것을 감안할 때 2020년은 핵무기 통제와 핵확산 방지가 어려운 해였지만, 핵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적 규범 발전에 핵심적인 진전이 있기도 했다. 2020년 10월 24일 온두라스가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5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그로부터 90일 이후 조약을 발효시켰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개발, 배치, 보유, 사용 및 사용의 위협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이 금지 조약은 핵군비축소와 핵억지 사이의 긴장을 불러 일으켰다. 시민사회와 많은 비핵 국가들이 조약의 발효를 환영한 반면, 핵무장 국가들(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및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1968년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기초한 기존 핵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NPT 10회차 검토 회의의 연기로 이어졌다. 2020년은 1970년에 발표된 NPT의 50주년이었고 1995년의 조약 유효기간 무기한 연장 결정으로부터 25주년이 되는 해였다. 2020년 정치적 맥락 속에서 회의가 실패할 것으로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검토회의가 연기된 것을 환영했는데, 이는 주로 핵 군비축소에 대한 오랜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러시아-미국 간 핵 군비통제

양자간 핵 군비통제에 대해 10년 이상 외교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2020년에도 러시아와 미국 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정치 및 안보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 군사 기술의 개발이 양

국의 전략적 역학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면서 하계 만들고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데 기여했다. 양국은 전략안보대화(SSD)의 틀에서 관심사를 논의하고자 노력했지만 2020년 말 현재 러시아와 미국은 2021년 2월 5일 만료될 예정인, 현존하는 마지막 양자간 핵군비통제 조약인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의 운명은 양국이 서로 접근 방식과 목표를 추구하면서 균형점에 서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조약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미국은 통제대상 무기와 검증절차를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을 조약에 가입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미래는 2020년에도 불확실성을 유지했다. JCPOA는 이란과 6개 참여국, 그리고 유럽연합 간의 협정으로, 제재 해제에 대한 대가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성격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로 체결되었다. 이란은 2020년에 JCPOA를 유지했지만 협정의 주요 조항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았다. 미국이 2018년 JCPOA를 탈퇴하고 2019년 '최대 압박' 정책을 가하자 이란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 관련 활동에 대한 JCPOA의 제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란은 다른 협정 참가국들이 협정을 다시 준수하기 시작하면 자국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2020년 말 미국이 새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2021년 이 병든 핵합의를 되살리기 위한 전망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란과 미국이 JCPOA의 의무로 복귀하는 조건에 합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하의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공격무기 총합
2011년 2월 5일, 2020년 3월 1일, 2020년 9월 1일 현재)**

데이터 범주	조약 제한	러시아		미국			
		2011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9월	2011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9월
배치된 ICBM, SLBM 및 중폭격기	700	521	485	510	882	655	675
배치된 ICBM, SLBM 및 중폭격기에 탄두 ^a	1 550	1 537	1 326	1 447	1 800	1 373	1 457
ICBM, SLBM 및 중폭격기의 배치 및 비배치 발사기	800	865	754	764	1 124	800	800

ICBM = 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참고: 조약은 2011년 2월 5일에 발효. 조약비준 제한은 2018년 2월 5일까지. 중폭격기 1대당 탄두 1개를 운반하는 것으로 집계.

^a 미국의 첫 공개 자료의 집계는 1,373개로 표시. 후속 공개 자료에는 1,372개로 명시.

북한

2018-19년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짧은 핵 협상이 붕괴된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졌고, 2020년 내내 계속됐다. 지난 1월 북한은 2018년에 선언한 핵폭발 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비행에 대한 일방적인 중단선언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그러한 시험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계속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관련 논란

핵 군비통제의 어려운 정치적 맥락은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경우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 조약은 발효 시점부터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핵폭발 실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다. 미국의 마지막 핵폭발 실험이 있었던 1992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미국의 관리들이 시범적 핵 폭발을 실시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연말 현재, 핵실험에 불리한 정치적 반응과 11월 선거 이후 미국의 정치적 변화,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어려움 등으

로 인해 이러한 실험은 불가능해 보인다. 한편 미국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인 핵실험 중단선언을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두 국가 모두 미국의 의혹을 부인했지만 공개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지는 않았다. ●



12.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코로나19 팬데믹의 전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2020년 말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은 8,200만 건 이상, 사망은 180만 명 이상으로 기록되었지만, 진단되지 않은 경우와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의 취약성 때문에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것이다. 팬데믹의 세계적인 경제사회적 충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비록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0년 말 기준 코로나19와 그 기원에 대해 파악된 것은, 일반적으로 코로나19가 자연적인 발병으로 시작되었으며 첫 검출은 2019년말 중국 우한에서 있었다는 점이다. ‘자연 유출(natural spillover)’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이 바이러스가 모종의 연구 관련 사건에서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비주류 견해도 있다. 병원을 밝히는 일은 일상적인 과학적 사안이었던지만 오히려 매우 정치화된 문제로 비화했다. 특히 중국은 팬데믹의 기원설을 통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가했다. 2020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초 세계보건기구국제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하는 임무를 맡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팬데믹이 공공 및 사회 경제적으로 미친 영향은 또한 모든 정부가 직면해온 문제를 매우 분명하게 드러냈다: 자국 시민들과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생물학적 안보 위협을 어떻게 예측하고 성공적으로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다. 생물학적 위협의 스펙트럼은 복잡하고 가변적이다. 이 위협 스펙트럼에는 자연적 질병 발생, 실험실 사고로부터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질병의 무기화, 그리고 이

노비츠크 NOVIKHOV 제제의 사용

2020년 노비츠크 계열 신경제에 포함된 유독 화학물질에 관한 추가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의 목록1 물질에 대한 기술적 변경 조항이 발효되었다는 것과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중독에 화학물질이 사용된 혐의가 발생했다는 것이 포함된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나발니에게 사용된 독이 비록 협약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비츠크 계열의 폴린에스터레이스 억제제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번 팬데믹 기간에 입증된 바와 같이, 생물학적 정보 전쟁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생물무기 군비통제

팬데믹은 또한 2020년에 중요한 생물무기 군비 통제와 비확산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72년 생물및독소무기금지협약(BWC)에 따른 회기간 전문가 회의와 조약 당사국 회의는 2021년까지 연기되었다. 그렇지만 조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활동과 발전이 2020년에도 있었다. 여기에는 생물및독소무기금지협약 발효 45주년의 기념, 202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팬데믹과 안보에 관한 공개 토론, 생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유엔사무총장기구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Mechanism에 대한 논쟁적인 새로운 유엔 총회 결의안 초안이 포함된다.

화학무기 사용 의혹 조사

러시아의 유엔사무총장기구 결의안 제출은,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조사팀들의 권위와 업무를 훼손하고 뒤흔드는 허위정보 및 낱조정보 캠페인과 같은 소수의 행위자들의 기존 노력과 같은 선상에 있다. 2020년에도 지속된 시리아 화학무기 조사와 다른 경험들은 이러



한 조사가 더욱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복잡하고 또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 회의에서도 분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화학무기 통제 및 군축

팬데믹으로 인해 화학무기금지기구 기술사무국의 일상적인 활동과 조사가 2020년 내내 연기되었다.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제25차 당사국 총회(CSP)는 2020년 조정된 방식으로 개최되었고 후반기 회의는 2021년으로 예정되었다. 당사국 총회와 화학무기금지기구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치적 분열이 다시 노정되었는데, 특히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이와 관련된 초안 프로그램 및 예산을 두고 분열을 드러냈다.

2020년 11월 30일 현재, 카테고리1로 선포된 화학 무기(화학무기금지협약의 목록schedule 1 물질에 기초한 무기)의 98.3%가 국제적인 검증하에 파괴되었다. 유일하게 미국은 아직 화학무기 보유국 중에서 이 범주의 화학무기를 파괴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시간표 내에 남은 파괴 활동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주요 사건

- 1월 3일. 중국,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원인불명 바이러스성 폐렴 감염 사례 40건 이상을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함.
- 1월 9일. 우한에서의 질병 발발의 원인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됨. 이를 후 첫 사망 건 보고됨.
- 1월 23일. 우한 격리조치.
-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로 선포함.
-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을 ‘코로나19’로 명명.
- 2월 16일. 세계보건기구-중국 합동조사단, 새로운 질병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시작함.
- 3월 7-8일. 확인된 세계 코로나19 감염 건수, 10만 명에 달함. 이탈리아, 첫 번째로 전국에 폐쇄조치 시행.
-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포.
- 4월 4일. 확인된 세계 코로나19 감염 건수, 1백만 명에 달함.
- 5월 18-19일 세계보건기구, 바이러스 기원을 확인하는 과제 수입.
- 6월 30일 확인된 세계 코로나19 감염 건수 1천만 명에 달함, 사망자 수 50만 명에 달함.
- 8월 11일. 러시아,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승인, 발표.
- 9월 30일. 코로나19 전 세계 사망자 수는 100만 명에 달함.
- 11월 5일 SARS-CoV-2의 기원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세계조사보고서의 세부규정 게시.
- 11월 8일. 코로나19 전 세계 감염자 수 5천만 명에 달함.
- 12월 31일 코로나19 전 세계 감염자 수 8,200만에 달함, 사망자 수 약 180만 명에 달함.



13. 재래식 군비통제와 새로운 무기 기술의 규제

국가의 재래식 무기 통제는 보통 두 가지 범주의 접근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비인간적이거나 무차별적이라고 간주되는 무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무기의 과도한 축적과 전용 또는 오용을 예방하고자 무기의 획득, 생산, 이전 및 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첫 번째 범주에는 1981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과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APM), 그리고 2008년 확산탄금지조약(CCM)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에는 2013년 무기거래조약(ATT)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협약으로 통제되지 않는 종류의 무기들도 있다. 그런 경우 국가들은 새로운 협약을 고려하거나 또는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의 경우처럼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다. 그런 방식이 실패할 경우 국가들은 인구밀집지역에서의 폭발물 체계(EWIPA)의 경우와 같이 덜 공식적인 접근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한다. 사이버 공간 또는 우주 활동과 같이 규제가 복잡한 경우 적극적인 다자간의 토론과 제로 상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으로 보인다.

국가간 상호 신뢰를 다지는 것으로 국제 안보를 개선하는 것도 무기 통제를 보완하는 일이다. 상호 신뢰구축은 무기 획득 또는 군사비 지출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한 비교적 간단한 다자간 메커니즘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도가 낮고 유용한 정보가 잘 제공되지 않는 기존의 무기 통제 제도들을 긴급히 재활할 필요가 있다.

1992년 항공자유화조약

2020년 5월 미국은 러시아가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2년 항공자유화조약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약은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34개 가입국의 영공에서의 비무장 공중관측비행을 관리하는 체제를 수립했다. 2002년 조약이 발효된 이래 1,500편 이상의 감시 비행이 실시되었다. 미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조약 탈퇴를 재고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약 탈퇴는 2020년 11월 22일 법적 효력을 발휘했다. 대부분의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 이행을 계속할 뜻이 분명해 보이지만, 2020년 말 현재 조약의 장기적인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대인지뢰와 확산탄

비록 국가가 대인지뢰를 다시 사용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분쟁중인 비정부 무장단체의 대인지뢰 사용, 특히 피해자가 활성화시키는 급조 폭발물(IEDs) 사용 문제가 커지고 있다. 2019년 중반-2020년 10월 기간 동안 비정부 무장단체의 대인지뢰 사용은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인도, 리비아, 미얀마 등 적어도 6개국에서 발생했다.

가장 최근 확산탄이 사용된 사례는 2020년 10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무력분쟁에서였다(양국 모두 확산탄금지조약 가입국이다). 2019-20년 기간 시리아에서도 확산탄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인구밀집지역에서의 폭발물

인구밀집지역의 폭발물에 대해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약 당사국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한 합의가 결여되어 있고 소수의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 협약의 의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확산탄금지조약은 진전을 보지 못



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해지면서 모든 재래식무기통제 토론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의 어려움도 더 커졌다. 확산탄금지조약 제도 내에서 인구밀집지역 폭발물에 관한 진전이 실패하자 몇몇 국가는 별도의 과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가 주도한 새로운 외교 과정은 인구밀집지역의 폭발물이 야기하는 인도적 피해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토론의 진전은 느렸지만 추가 협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2021년 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살상무기 체계

자율살상무기체계(LAWS)를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CCW)의 틀 안에서 규제하기 위한 노력은 2014년 시작되었으며, 2017년 이래 정부전문가그룹(GGE)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20년 논의는, 2021년 개최 예정인 특정재래식 무기금지협약 제6차 검토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의견이 수렴되는 핵심 영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토론은 팬데믹 관련 제약뿐 아니라 정부전문가그룹의 결론과 수입 사항에 대해 근본적이고 끈질긴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벽에 부딪혔다. 논쟁은 대표적으로 서구대표단과 러시아 및 비동맹운동 사이에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전문가그룹이 2019년 채택된 11개 이행원칙을 넘어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정보통신기술(ICT)의 보안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와 사이버 규범의 거버넌스에 대한 대화는 여러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가 주도적 노력은 2020년에도 2개의 유엔 병행 과정으로 지속되었다(개방

형 실무그룹과 정부전문가그룹).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지털 환경이 변화했고 거버넌스 실행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관심사와 규범적 선호도의 차이가 ICT의 악의적 사용을 통제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해 보인다.

우주 안보의 진전

우주에서의 분쟁 위험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주 활동의 안보와 안전 측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이다. 2020년에 발생한 불안정 요소에는, 논란이 되었던 러시아의 위성 랑데뷰와 근접 작전 및 위성요격 실험과 미국의 일방적 우주 정책 채택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2020년 12월 유엔 총회는 영국이 주도하여 제기된, 우주에서의 책임 행동을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유망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우주 안보를 위한 논의가 다자간 규제의 접근법으로 회귀할 것으로 기대된다. ●



14.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020년에도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 무기, 핵무기 및 그 전달체계와 관련된 이중용도 거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다자간, 지역적 노력은 계속되었다.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거래에 대한 합의된 표준을 수립하고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는 다양한 국제적, 다자간 협약의 가입국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확대된 국가적 자원들과 커다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이러한 제도의 힘이 점점 흔들리는 징후가 높아졌다. 이러한 징후는, 2013년 무기거래조약(ATT)에 대한 보고의 감소와, 유엔 무기금수조치에 대한 다양한 보고의무 위반, 그리고 2020년 이후까지 대이란 유엔 무기금수조치를 연장하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노력에서도 나타났다.

무기거래조약

2020년 8월, 제6차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회의가 대면 회의 없이 서면 절차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논의 중단 외에도, 무기거래조약 회의가 노정한 몇 가지 문제들, 특히 보고의무 준수 정도와 보고서 공개의 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지속됐다. 무기전용 정보교환포럼의 설립과 중국의 무기거래조약 가입은 두 가지 진전으로 기록된다.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20년 동안 유엔 무기금수조치 13개, 유럽연합(EU) 무기금수조치 21개, 그리고 아랍연맹 무기금수조치가 시행되었다. 새로운 다자간 무기금수조치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대이란 주요 무기공급 및 무기수출에 대한 유엔 무기금수조치가 만료되었지만 그 외 영역의 대이란 무기금수조치는 유지되었다. 유럽연합의 21개 무기금수조치 중 10개는 유엔이 부과한 무기금수조

발효중인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20년

유엔(13개 무기금수조치)

- 아프가니스탄(NGF, 탈레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부분적; NGF) • 콩고민주 공화국(부분적; NGF) • 이란(부분적) • 이라크(NGF) • 이슬람국가(다에쉬), 알 카에다 및 관련 개인과 분대 • 북한 • 레바논(NGF) • 리비아(부분적; NGF) • 소말리아(부분적; NGF) • 남수단 • 수단(다르푸르)(부분) • 예멘(NGF)

유럽연합(21개 무기금수조치)

유엔 무기금수조치 이행(10개):

- 아프가니스탄(NGF, 탈레반)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부분적; NGF) • 콩고민주공화국(부분적; NGF) • 이라크(NGF) • 이슬람국가(다에쉬), 알카에다 및 관련 개인과 분대 • 북한 • 레바논(NGF) • 리비아(부분적; NGF) • 소말리아(부분적; NGF) • 예멘(NGF)

유럽연합은 유엔 대응보다 더 넓은 범위로 무기금수조치(3개):

- 이란 • 남수단 • 수단

유엔 조치와 별도로인 무기금수조치(8개):

- 벨라루스 • 중국 • 이집트 • 미얀마 • 러시아 • 시리아 • 베네수엘라 • 짐바브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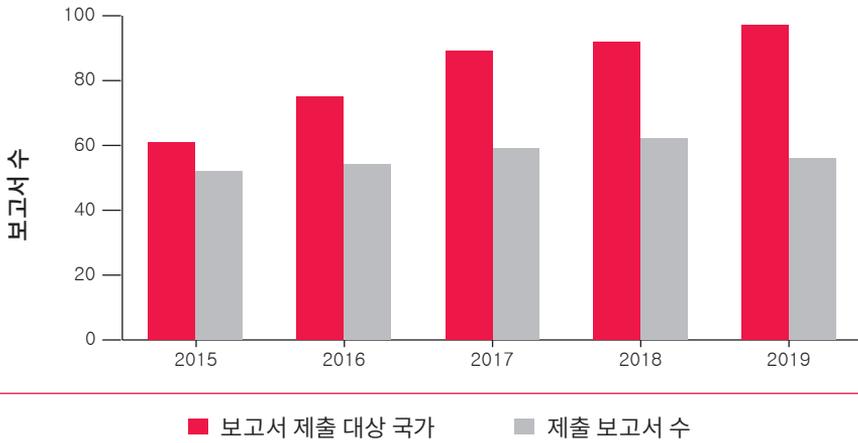
아랍연맹(1개 무기금수조치)

- 시리아

ISIL = 이라크와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 NGF = 비정부 세력; 부분 = 금수조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대상 국가의 정부에 무기를 전송 할 수 있다.

치의 범위와 일치했는데, 다른 3개는 적용 기간과 지리적 범위 또는 적용되는 무기유형 면에서 더 광범위했고 그 외 8개의 금수조치는 관련된 유엔 무기금수조치 없이 시행되었다. 아랍연맹의 대시리아 단일 무기금수조치에는 유엔의 대응이 없었다. 2020년은 다자간 무기금수조치에 도전이 제기된 해였다. 미국은 2020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이 제출한 2015-19년 연간보고서



년 10월 이후까지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조치를 일방적으로 연장하려고 했다.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의 대리비아 무기금수조치와 관련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많은 위반 사례가 유엔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유러난보협력기구(OECE)의 자발적 무기금수조치의 실행과 집행 정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수출통제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네 가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화학 및 생물학 무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원자력공급국그룹,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바세나르Wassenaar체제 중 어느 하나도 연례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몇몇 체제는 코로나19로 제기된 도전의 유형에 대응하는데 제도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신속 협의 방식을 취했다. 4개 수출통제체제 중 2020년 새로운 참여국(또는 협력국)을 받아들인 경우는 없었다.

유럽연합의 통제

유럽연합은, 유럽경제공동체(유럽 공동시장)에서 네 가지 수출통제체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중용도 품목 및 무기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 중개, 운송 및 환적을 통제하는 공동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2020년 유럽연합은, 2011년 시작된 유럽연합 이중용도규제안 협의 과정을 검토하고 재조명하는 논의를 마친 후, 새로운 버전의 이중용도규제안 최종 문안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로 유럽연합의 무기수출 연간보고서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에 관한 현행 협정
(2021년 1월 1일 기준)**

- 1925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물질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1925 제네바의정서)
- 1948 집단살해범죄 방지 및 처벌에 대한 조약 (제노사이드조약)
- 1949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 (제4차 제네바협약); 1977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 1, 2의정서가 제4차 제네바협약에 추가
- 1959 남극조약
- 1963 대기권 ·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TBT)
- 1967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우주조약)
- 1967 라틴아메리카의 핵무기금지에 관한 조약 (토라테로코조약)
- 1968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조약 (핵비확산조약, NPT)
- 1971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해저비핵화조약)
- 1972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1974 지하핵실험제한조약 (TTBT)
- 1976 평화적 목적의 지하 핵폭발에 관한 조약 (PNET)

- 1977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협약)
- 1980 핵물질물리적방호협약
- 1981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CW협약, 혹은 ‘비인도적 무기’에 관한 조약)
- 1985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라로통가조약)
- 1987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중거리핵전력조약 / INF조약)
- 1990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조약)
- 1992 항공자위화조약
-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화학무기금지조약, CWC)
- 1995 동남아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 1996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펠린다바조약)
- 1996 세부지역군비통제협정 (플로렌스협정)
- 1997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자재의 불법 제조 및 밀거래에 대한 미주 간 협약 (CIFTA)
- 1997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이전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 APM 협약)
- 1999 재래식무기 인수의 투명성에 관한 미주 간 협약
- 2001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지역 내 화기, 탄약 및 기타 관련 자재의 통제에 관한 의정서
- 2004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및 아프리카의 빨간 지역 내 소형무기의 방지, 통제, 축소에 관한 나이로비 의정서



2006 소형무기 및 탄약, 기타 관련 자재에 관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협약

2006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조약
(세미팔라틴스크조약)

2008 확산탄금지협약

2010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2010 소형무기 및 탄약, 그것의 제조, 수리 및
조립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부품 통제에
관한 중앙아프리카 협약 (킨샤샤협약)

2011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2011년
비엔나문서

2013 무기거래조약 (ATT)

2017 핵무기금지조약(2021년 1월 22일 발효)

미효력 협정 (2021년 1월 1일)

199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1999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개정

안보 협력 기구

2020년에는 북마케도니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이 되고, 코모로가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이 되고,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
하는 변화가 있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전
환기 동안 영국은 EU 단일 시장에 포함되어 있었
지만 정치 제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

2020년 주요 사건 연대기

1월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쿠드스 군
사령관카셈 솔리마니 장군이 사망

2월 29일. 미국과 탈레반은 조건부 평화협정
에 서명

3월 23일.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글로벌 휴전을 촉구

4월 23일. 전 시리아 육군 고위 간부들이 전쟁
범죄 혐의로 독일에서 재판을 받음

5월 25일. 미국 미니아폴리스의 경찰관에 의
해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가 국내
및 국제 시위를 촉발

6월 15일.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로 45년
만에 실제 통제선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

7월 22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정부군과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 사이에 휴전
이 합의

8월 18일. 말리에서 군사 쿠데타로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 대통령이 사임하
도록 강요

9월 12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은 아
프가니스탄 내 평화 회담을 시작

10월 3일. 수단의 과도기 정부와 다양한 수단
무장 반대 단체가 주바 평화 협정에
서명

11월 3-7일. 조 바이든 Joe Biden 제46대 미국 대통
령을 선출

12월 24일. 유럽연합과 영국은 포괄적인 자유
무역 협정에 동의



피스모모

피스모모는 평화와 배움, 평화와 일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를 중심가치로 두고, 평화커먼즈(peace commons)를 실천하는 시민공동체를 확장해갑니다.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본 연구소는 피스모모의 평화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사업을 통하여, 평화와 교육분야의 인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피스모모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천의 내용적 심화와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PEACE
MOMO**
피스모모
PEACEMOMO

홈페이지: peacemomo.org
이메일: peacemomo0904@gmail.com
대표번호: 02-6351-0904
팩스: 303-3441-0904
주소: (0337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65, 1층·3층 피스모모

TEPI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TRANS-EDUCATION FOR PEACE INSTITUTE

홈페이지: momotepi.org
이메일: momotepi1211@gmail.com
대표번호: 02-6352-0904



SIPRI 데이터베이스

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1949년 이래 국가들의 연간 군사비 지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군사비 지출액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별 통화 금액을 US 달러로 일정하게 환산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을 제공한다.

SIPRI 무기산업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100개 회사들의 총 수익과 무기 판매 및 군사 용역을 통한 업체별 수익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기업 제외)

SIPRI 무기이전 데이터베이스 1950년 이후 주요 국제적 재래식무기이전에 대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IPRI 무기금수조치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유엔, 또는 국가간 조직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시행된 모든 무기금수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1998년부터 시행되어온 모든 금수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SIPRI 국가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무기 수출에 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국가 보고서의 링크를 제공하며, 새롭게 발간되는 국가 보고서의 링크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다.

SIPRI 다자간 평화활동 데이터베이스 2000년 이후 실시된 모든 유엔 및 비유엔 평화활동에 대한 정보 (위치, 배치 및 활동 기간, 수행과제, 참여국가, 수행인원, 비용, 사망자수 등)를 제공한다.

SIPRI 데이터베이스는 SIPRI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gnalistgatan 9
SE-169 72 Solna, Sweden
Telephone: +46 8 655 97 00
Email: sipri@sipri.org
Internet: www.sipri.org

2021 시프리 연감 구매하는 방법

2021 시프리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영문)

Oxford University Press 온/오프라인 출판

ISBN 978-0-19-284757-7, 양장본

ISBN 978-0-19-193988-4, 전자책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ipriyearbook.org에서 확인 가능함.

번역 이대훈

검토 김예은, 한광희

출판 더슬래시

디자인 소행성디자인



SIPRI YEARBOOK 2021

군비, 군축, 국제안보

SIPRI 연감은 군비, 군비축소,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권위 있고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국제안보, 무기, 기술, 무기생산과 무기거래, 무력갈등, 갈등관리, 재래식무기, 핵무기, 생화학무기 통제와 관련된 개괄적 정세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2020년 정세를 다룬 SIPRI 연감 제52호를 요약한 자료이며,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무력분쟁 및 분쟁관리: 세계적 지역적 평화프로세스의 동향, 분쟁 관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UN의 전세계 휴전 호소, 그리고 미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의 무력분쟁과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개괄
- 군사비 지출, 국제무기이전, 무기생산 동향
- 세계 핵전력: 9개 핵무장국 각각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분석
- 핵무기통제: 러시아-미국의 전략적 대화, 이란의 핵 협상,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표를 포함하는 다자간 핵무기 통제 및 군축 조약 동향
-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혐의 조사, 전시 생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법제도의 동향
- 재래식 군비통제: 자율살상무기체제 규제,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국가 행동 규제, 항공자유화조약의 동향을 포함, 국제 제도에 초점
-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 통제: 무기거래조약의 동향,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및 수출 통제체제, 유럽연합의 무기거래 통제 관련 법제도의 재검토 과정을 포함

이 외에도 부록으로 군비통제 및 군축협정, 국제안보협력기구 목록 및 2020년 주요 사건 목록을 수록하고 있음.